

300의 용사들

기드온의 용사들 / 쓰이는 사람들

한줄요약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도 용맹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아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입

300의 용사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영화 300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영화 300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생각 하면 얼마나 용맹하고 강력해보입니까?

근데 이 용사들이 만약 용맹, 강력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전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1) 기드온의 용사들

오늘 말씀에도 30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성경을 안다 하면 한번쯤은 들어봤을만한 <기드온의 300용사>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용맹하다?, 겸손하다? 실은 이 300용사의 대표 기드온부터가 겁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의 기드온은 포도주들에 숨어 타작하는 모습이었고 겁이 나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300용사는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두고 모집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만2천명이 모였으나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라 합니다. 이는 신명기 20장 8절에 나오는 군대에 대한 규례대로 행한 것 이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기드온 부터가 겁쟁이었다는 것 이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고 이제 만 이천명이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많다고 합니다.

이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미디안의 군대는 135,000명인데 그래도 많다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믿으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숫자를 줄여 물 먹는 사람으로 사람을 뽑아 딱 300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숫자를 300명으로 하신 것 일까요? 그것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혹시 이들이 교만하여 우쭐덜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용맹하다는 표현도 없도 특출나게 뭔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300명에게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2) 쓰이는 사람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사역하기에 인간의 기준에서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어 게속해서 눈을 다른데로 돌려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신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조선은 기독교인들을 국가가 나서서 처형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어 들어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안에서 역사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사역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인생 삼손

삼손의 삶 / 삼손의 마지막

한줄요약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서 잘된 듯 보여도 실패한 삶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승리하는 삶이된다

도입

성도님들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권력의 유무?, 명예?, 재산?, 사회에서의 성공?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보는 성공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삶을 보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 너머의 시간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아이기일 겁니다.

1) 삼손의 삶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삼손하면 보통 영웅적인 행보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신앙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으나 나실인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했지 그 마음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행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졌지만 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삼손의 쓰임새를 보면 우리도 참 생각할 것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삶에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자신이 너무 잘 나가고 있다 생각했을테니요. 그런데 삼손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당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가운데 자신의 대적 블레셋에게 잡혀 포로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죠 두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연자맏들을 돌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를 영웅으로 대접하지 않았었습니다. 명예가 중요한 고대사회에서는 진정으로 그를 영웅으로 생각했다면 명예롭게 처형했지 노예들이나 짐승들이 하는 일을 하게해서 치욕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합니다.

2) 삼손의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블레셋은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축제를 열어 삼손에게 치욕을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은 물론 하나님까지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삼손이 패배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삼손은 이들에게 받는 치욕을 갚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결코 긴 머리카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삼손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아쉬운 점은 그의 기도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개인의 복수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3천명이나 되는 블레셋을 죽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만 했습니다. 결국은 삼손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 히브리 역사가들은 그가 실패한 사사라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거룩한 사역만큼 중요한 것은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해도 그것이 타락한 삶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면서 뒤로는 온갖 비리를 저질러 타락하는 많은 사람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삼손의 삶과 다르지 않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도 우리는 목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특별한 능력과 재주 그리고 경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삼손과 같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15-25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반복되는 죄 /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한줄요약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것의 반복을 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도입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터넷 용어이지만 이것에 대한 용례는 사사기 2장 19절과 잠언 27장 20절이라고도 합니다.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결과가 있음에도 돌진하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과한 욕심으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건 크건 도박같은 일들이 있죠. 심지어 게임 뽐기나 확률 낮은 게임 무기강화 같은것도 결과는 어느정도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돌리다 돈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다음에 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1) 반복되는 죄

사사기 21장은 각 자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동족상잔이 일어난 비참한 전쟁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베냐민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여 범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레위인 또한 불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내주고 방관했으며 아내를 두고 가려 했으나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아내를 토막내어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베냐민은 이들을 내주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불의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돌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봉에 설 것을 묻습니다. 3번의 전쟁 중 2번을 지고 3번째에 승리하지만 자신들의 지파 중 한 지파가 멸절될 것 같으니 이스라엘은 또 다시 죄악된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복되는 죄로 심판, 회개, 구원, 죄짓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섬기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죄악은 점진적으로 심해지게 아니라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을 보고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요.

2)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할 때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을 때 어김없이 그들을 침략당하고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복하면서 겪음에도 잘 나가는 이방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배팅합니다. 자신들의 이웃지파 혹은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겪었던 고통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다를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없는 욕심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평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음에도 각기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데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삶

을 산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찾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변화 되는 계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4장 13-17절

진정한 통치자

에스더의 결단 / 하나님의 섭리

한줄요약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도입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나에 따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부터 굵직한 일까지 많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냐? 신앙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겪는 선택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중요한 문제에 있어 <한번 쯤은 지키지 않아도 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신앙에 대해 목숨을 건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에스더의 결단

에스더 또한 그런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에스더는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메대,바사 왕국의 왕비가 됩니다. 한편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대신 하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개와 유대인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고발하고 왕은 승낙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애곡하며 금식했습니다. 에스더 또한 삼촌 모르드개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사형이기에 중재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르드개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진행 될 시 혼자 살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나와 네 아버지집은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모르드개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같은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신뢰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통해서도 확신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구원될 것이 틀림없었으며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모르드개가 언급하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은 누가 에스더로 하여금,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로 소명됐다는 사실을 깨달도록 하기 위한 설득이다.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왕후의 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신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2)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는 이러한 모르드개의 말에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아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요청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는 자신의 죽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다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고 결단한 에스더의 신앙고백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한 결단은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듯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는 역사 안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는 물론 종교개혁, 한국의 복음화 등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처: 엑스포지멘터리 사사기, 두란노 HOW주석 07_사사기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 아카데미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사사기, 김지찬 저 여호와와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두란노 HOW주석 15_에스더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엑스포지멘터리 룻기, 에스더